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를 위해 대성전 출입을 통해 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등에 따라 상기 지침이 본 주보 발행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에 따른 본당 운영 지침 안내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성사,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청소년봉사부와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고, 주일학교 여름캠프는 없습니다. 초등부·중고등부·솔방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본당 재정 회복을 위한
2020년도 교무금 책정·납부 요청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8월 1일 기준, 명동에 교적을 두고 있는 전체 19,364세대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2,768세대로 전체 대비 14.29%밖에 미치지 못하며, 책정하신 세대 중 실제로 교무금을 납부하고 계신 세대수는 2,175세대로 이는 전체 대비 11.2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이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 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명동대성당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8월 3일 ~ 8월 9일 : 450,000원)

누계 : 1,534,525,123원

조 경 수 :	100,000원	김 동 호 :	100,000원
김 진 환 :	100,000원	익 명 :	100,000원
익 명 :	5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하절기 미사 참례 복장과 자세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미사 참례 시 슬리퍼, 반바지, 민소매 옷은 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당 내에서는 모자를 벗도록 합시다. 또한 기도서, 성가책, 주보 등으로 부채질하는 행동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